

디아컨템포러리 | 2년 만의 국내 개인전
낮에 지나친 순간들이 밤에는 꿈이 된다
이소정 개인전 《채집록 (FIELD NOTES)》

Annex 1



이소정 SOJEONG LEE
The Three Apples and the Earthworm, 2026, Oil on canvas, 80 x 120 cm

전시 제목 : 채집록 (Field Notes)

참여 작가 : 이소정

프레스 + 프라이빗 뷰잉 : 2026년 8월 29일 (토) 오후 1시 - 7시

한남나잇 : 2026년 9월 1일 (화) 오후 6시 - 10시

전시 기간 : 2026년 8월 29일 (토) - 9월 23일 (토)

전시 장소 :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04419

전시 소개

뒤셀도르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소정의 두 번째 국내 개인전 《채집록 (Field Notes)》이 2024년 《야간비행 (Night Dreamer)》 이후 2년 만에 디아컨템포러리에서 열린다.

첫 국내 개인전 이후 이소정은 독일을 중심으로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며 작업의 지평을 확장해왔다. 2025년에는 이소정의 독일 내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장한 두 차례의 주요 성과가 있었다. 작가는 레클링하우젠 시가 1948년부터 수여해온 독일 최초의 공공 현대미술상인 제40회 《쿤스트프라이스 용어 베스텐 2025-회화 (Kunstpreis junger westen 2025-Malerei)》에 선정되었다. 독일 전역에서 약 690명의 작가가 지원한 가운데 최종 22인에 포함되어 레클링하우젠 미술관(Kunsthalle Recklinghausen)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같은 해에는 졸링겐 미술관(Kunstmuseum Solingen)이 주관하는 제79회 《국제 베르기세 미술전 (Internationale Bergische Kunstausstellung)》에도 선정되었다. 1946년 시작된 이 전시는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현대미술전 중 하나로, 2025년에는 약 200명의 지원자 가운데 15명의 작가만이 최종 선정되었다. 두 전시를 통해 이소정의 회화는 독일 동시대 미술의 맥락 안에서 그 가능성과 확장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이소정 작가는 독일에서 생활한 시간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이주 경험을 다루는 작가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초기 작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 타지에서 살아가는 불안과 고독이 직접적인 정서적 동력으로 작용했다면, 이제 그것들은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감각적 조건이 되었다. 어느 도시에서든 시간은 흐르고 하루는 반복되지만, 오랫동안 타인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경험은 익숙하다고 믿었던 풍경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완전히 낯설지도, 온전히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를 오가는 시선은 평범한 현실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채집록 (Field Notes)》은 바로 그 틈에서 시작된다.

전시 제목인 ‘채집록’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기록하는 문서를 연상시키지만, 이소정이 채집하는 것은 명확한 형태를 지닌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가 지나간 뒤에도 희미하게 남아 있는 감각, 무심히 지나쳤으나 뒤늦게 되살아나는 장면,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의 잔여물에 가깝다.

작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을 불러내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순간들을 하나의 화면 안에서 다시 배열한다. 이 과정에서 기억은 과거를 온전히 복원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무의식에 의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가변적인 이미지가 된다

이소정의 회화에서 현실과 상상은 서로 대립하는 두 영역이 아니다. 구체적인 일상의 장면들은 꿈과 기억을 통과하면서 낯선 관계를 맺고, 짧은 단막극처럼 압축된 서사로 전환된다. 작가는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기보다 기억 속에서 생략되고 과장되며 뒤섞인 요소들을 몽타주하듯 결합한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비롯된 이미지들은 하나의 장면 안에 공존하고, 화면은 실제 경험과 잠재된 감정이 중첩되는 심리적 무대로 변모한다.

이번 전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불청객’은 이러한 변환을 가시화하는 핵심적인 존재다. 가방 안에 숨어든 개구리, 담장에 말라붙은 불가사리, 케이크 진열장에 자리 잡은 작은 쥐, 악몽의 잔상처럼 드리워진 그림자는 현실의 인과관계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과 무관한 초현실적 장식이나 서사를 위한 기발한 장치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평온한 일상의 표면 아래 축적되어 있던 불안과 욕망, 소외감과 긴장이 예기치 않은 형태로 출현한 감정의 징후에 가깝다.

불청객은 처음에는 화면의 질서를 교란하며 위화감을 발생시키지만,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사물과 인물, 풍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낯선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과정은 이소정의 회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일상 바깥의 기이한 세계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상 안에 잠재해 있었으나 쉽게 인식되지 않았던 감정과 징후를 드러낸다. 친숙한 장면은 낯설어지고, 이 질적으로 보였던 존재는 다시 익숙한 현실의 일부가 된다.

인물은 이러한 경계적 공간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다. 이소정의 인물들은 사건을 주도하거나 분명한 감정을 전달하기보다, 현실과 꿈의 경계에 잠시 멈춰 선 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감각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들의 시선과 몸짓은 하나의 완결된 서사를 제시하지 않고, 장면의 전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한다. 화면 속 인물과 불청객, 사물 사이에 형성되는 모호한 관계는 관람자를 서사의 외부에 머무는 관찰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기억을 함께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참여자로 이끈다.

이소정에게 회화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통로라기보다 현실을 더욱 오래,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방법이다. 가장 사소한 기억은 꿈과 무의식을 통과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반복되는 일상은 낯선 풍경으로 다시 태어난다. 《채집록 (Field Notes)》에 놓인 장면들은 완결된 이야기의 삽화가 아니라, 현실과 꿈, 기억과 상상이 서로를 침범하며 만들어낸 잠정적인 기록이다. 작가는 오늘도 무심히 흘려보낸 하루의 파편을 되짚어 그 안에 머물던 감정과 낯선 존재를 채집한다. 그렇게 캔버스에 옮겨진 기록들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우리 각자의 일상에도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과 보이지 않는 불청객이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조용히 환기한다.

작품 이미지

Annex 2



이소정 SOJEONG LEE

11:18, 2026, Oil on canvas, 180 x 120 cm

작품 이미지

Annex 3



이소정 SOJEONG LEE

Memories of Sea, 2026, Oil on canvas, 160 x 120 cm

작품 이미지

Annex 4



이소정 SOJEONG LEE

A Journey Within, 2026, Oil on canvas, 120 x 70 cm

작품 이미지

Annex 5



이소정 SOJEONG LEE

The Little Intruder, 2026, Oil on canvas, 100 x 160 cm

작품 이미지

Annex 8



이소정 SOJEONG LEE

Little Ant, 2026, Oil on canvas, 120 x 160 cm

작품 이미지

Annex 7



이소정 SOJEONG LEE

A Cage Without a Bird, 2026, Oil on canvas, 140 x 100 cm

작품 이미지

Annex 6



이소정 SOJEONG LEE

Target, 2026, Oil on canvas, 120 x 80 cm

채집록: 꿈과 현실의 봉합

이성휘 큐레이터 | 하이트문화재단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개인전 《채집록》에서 이소정은 일상 속 사소한 기억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심리적 풍경으로 구성하여 회화로 펼쳐낸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작가의 일상에서 출발하지만 심리적 풍경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꿈과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2년 전 서울에서 개최한 개인전 《야간비행: Night Dreamer》(2024) 이후 이소정의 회화는 여전히 꿈과 무의식이 작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사이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작가가 몰두해온 꿈과 무의식은 그 성격이 공포의 원천에서 창조적 편집 장치로 바뀌었고, 회화 화면은 관람자의 심상이 좀 더 개입할 여지를 주는 심리적 공간으로 확장되었으며, 작업의 기반은 불안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한층 여유로워진 작가의 태도 또한 감지된다. 이 글에서는 이소정의 회화가 꿈과 무의식을 기조로 하지만 꿈과 현실을 이음새 없이 봉합해내는 방식으로 나아간 변화의 양상을 짚어 보고자 한다.

악몽에서 일상으로

이소정의 회화는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 고독과 같은 감정을 시각적인 일기처럼 풀어내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작들에서는 연기, 종이비행기, 종이배, 곤충 채집망 등 몇 가지 사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작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활용되곤 했다. 인물의 표현에 있어서도 크고 텅 빈 눈, 상기된 볼 표현을 통해서 불안정한 내면과 심리를 도드라지게 보여줬다. 그림 속 인물들은 작가 개인의 무의식적 깊이에 집중하는 자화상에 가까웠다. 전반적으로 작업의 출발점이 된 것은 악몽이었고, 꿈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터져 나오는 통로로 작용했다. 작가는 이를 자신의 회화 화면 위에 펼쳐 놓곤 했다.

그러던 이소정이 이번 개인전을 앞두고 공유해 준 노트에서 자신의 그림이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평범한 시간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마주치거나 보았던 나무 그늘, 고장난 엘리베이터, 달력, 개미, 이웃의 지붕 같은 것들에 대한 사소한 기억들이 작업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하는 작품인 신작 <11:18>(2026)은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작가가 요리를 하며 남은 일과 시간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인물의 표정을 보건대, 이제는 트라우마나 공포의 강도가 한층 낮아지고 스쳐간 상황에 대한 침착한 대처나 숙고가 강해진 듯하다. 작가는 불쑥 튀어나오는 불안과 상상을 불청객이라고 칭하고, 이로 인해 분주해진 자신의 머릿속을 정리하며 요리를 하곤 한다. 그러나 주방 위를 누군가 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평범한 일과를 수행하는 장면과 더불어 결합되었을 때, 불안의 감정은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 현실의 안온함 쪽에 좀 더 다가와 봉합된다. 이전 작업들이 화면 전체에 어떤 스산한 기운을 드리우는 경향이 컸다면, 이제 작가는 불청객이 찾아오더라도 큰 흔들림 없이 무사히 반복되고 있는 일상의 디테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

밤의 반복: 자기 회귀의 시간

이소정은 자신의 회화가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회화에서 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시간적으로 밤은 작가에게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경우에 따라 여전히 악몽이 지배하는 불안한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창조적 영감을 획득하는 잠재적인 시간이기도 하다. 밤 자체가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하여 이소정의 그림에서는 밤이라는 시간대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Night Ferry>(2026)에서 선박의 둥근 창(포트홀)을 통해 고개를 내민 인물은 밤의 바다를 여행하고 있다. <In the Reeds>(2026)에서도 인물은 한밤중에 도시를 등지고 어두운 갈대밭에 우두커니 서 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작품 모두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드러내는 데 있어 조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작가는 인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화면 안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특히 인물이 배경 안에 묻혀 버리는 것을 경계한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작품 속 인물은 모두 화면의 중앙이자 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작가가 푸른색 실루엣으로 간단히

묘사한 인물의 얼굴 윤곽이 여전히 창백하기는 하지만 환한 조명을 통해 집중케 한다. 초기작에서는 불안의 징후였던 상기된 볼이 이제는 인물의 생기를 전하는 것처럼 발그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피부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공간적으로 밤은 그림의 소재를 넘어서 화면 자체의 조건이 된다. 어둠은 배경을 지우고 불필요한 디테일을 삼키기 때문에, 이소정이 경계하는 인물이 배경에 묻히는 것을 역설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Night Ferry>, <In the Reeds>, 그리고 <11:18>에서 밤의 어둠은 동시에 화면의 여백이 되면서 인물의 얼굴에서 두드러지는 조명 대비를 강화하고, 그림의 서사는 인물에게 응축된다.

이러한 밤은 매일 반복되지만 같은 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소정에게 찾아오는 나선형의 시간이다. 그래서 그의 회화는 극적 사건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채집과 봉합

하루 일과가 끝난 작가에게 밤은 현실과 꿈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 반복되는 밤에 작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 동안 스쳐 지나간 사소한 풍경들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시간과 장소로 연결하는 상상을 한다. 이때 꿈 속에서 작가가 맞닥뜨린 여러 기억들이 함께 연결된다. 이전부터 작가는 자신의 꿈과 무의식을 영화의 씬처럼 느끼곤 하였다. 꿈을 통해 작가는 영화의 평행 몽타주 기법처럼 서로 상관없는 씬을 연결하여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회화 작업으로 연결하였다. 이소정은 이를 기억의 재편집 과정이라고 일컫는데, 회화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장면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공존케 한다. 그는 꿈을 단순히 환상의 공간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며 현실을 재편집, 재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한다.

20세기 초현실주의 작가들 중에도 꿈을 채집하는 행위를 일종의 방법론으로 활용한 이들이 있었다. 앙드레 브르통은 그의 《초현실주의 선언》(1924)에서 꿈과 현실이라는 두 상태가 언젠가는 절대적 현실, 즉 초현실로 융합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자동기술법이나 꿈 일기, 최면 상태의 구술 같은 방식으로 무의식의 산물을 마치 표본을 수집하듯 모으곤 했다. 이들처럼 완전히 초현실적인 환상에 기대는 것은 아니나, 이소정이 꿈을 채집하는 행위는 꿈을 저쪽 세계로 간주하기보다는 현실의 물질로 끌어오는 봉합의 행위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해부대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로트레아몽의 구절을 모토로 삼은 초현실주의자들이 꿈과 현실이라는 이질적인 두 조각을 꿰맨 자국이 보이게 이어 붙이곤 했다면, 이소정 회화의 채집과 봉합은 이음새 없는 표면에 가깝다. 사실 채집된 꿈은 이미 순수한 꿈이 아니라 현실 언어와의 봉합물이다. 그리고 회화를 통해서 언어화되고 이미지화되는 순간 불가피한 변형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회화는 또한 화가의 창작의 장소로 기능하기에 이소정의 회화에서 채집과 봉합은 꿈과 무의식에 대한 번역과 해석의 행위이자 현실과의 봉합을 통해서 새로운 심리적 공간을 발생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소정의 회화는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는 세계를 조금은 낯설게 보기를 추구한다. 작가가 작은 어긋남 속에서 기억과 감정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순간에 주목하는 이유다. <The Little Intruder>(2026)의 작은 쥐는 이소정의 표현을 빌리면 불청객이기는 하나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현실적 기준에서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라따뚜이>나 <스튜어트 리틀>과 같은 애니메이션에서의 익살스러운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A Journey Within>(2026)을 보면서도 우리의 상상은 <나루토>나 <개구리 중사 케로로> 등 개구리나 두꺼비가 인간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벌어지는 애니메이션 속 소란으로 뿔어간다. 애니메이션 속의 형상은 고정된 형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되곤 하는데, 이 가소성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 자체를 느슨하게 만든다. 이소정의 회화 역시 이 경계가 느슨하고 존재론적 위화감이 없는 편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했고, 만물이 대등한 존재로 교류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익숙하다. 이소정의 회화에서 발생하는 채집과 봉합은 이렇게 경계선 없는 융합이자, 우화에 가까운 보편적 서사로 다가온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 디아컨템포러리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A)는 동시대 미술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각과 사유, 물질과 맥락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싱가포르와 서울을 기반으로 축적해온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DIA는 동시대 예술의 다층적인 흐름을 탐색하며 작가와 작품, 공간과 담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DIA(디아)는 그간 정교하게 기획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으며, 국내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그 예술적 잠재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축적을 기반으로, 2024년 서울 삼성동에서 첫 문을 연 DIA는 이후 한남동의 확장된 공간으로 거점을 옮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보다 넓은 시야로 동시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시를 전개하고 있다.

DIA(디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작품 소개를 넘어, 각 작업이 지닌 조형적 언어와 개념적 깊이,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와 맺는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일이다. 회화, 조각,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예술의 실험성과 미학적 밀도, 물질성과 사유의 층위가 살아 있는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에 대한 보다 확장된 감각을 제안한다.

동시에 DIA(디아)는 일시적인 흐름이나 협소한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한 시각과 태도를 지닌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이들이 보다 넓은 국제적 문맥 안에서 읽히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예상 가능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발견과 질문,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DIA(디아)는 전시 공간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 작가의 비전과 관객의 경험, 그리고 동시대 담론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설계함으로써, 예술이 보다 밀도 있게 경험되고 오래 사유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라는 이름은 곧 이러한 방향성을 함축한다. 예술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발견이 다시 감각과 사고를 자극하며,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예술적 실천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DIA(디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전시 문의

[담당자]

김우재 디렉터

woojae@diacontemporary.com

info@diacontemporary.com

[작품이미지 및 전시 전경]

Annex 1-8이미지는 구글드라이브 ([여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갤러리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04419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